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제3233호 www.metroseoul.co.kr

‘삼성X파일’의 교훈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두고두고 찜찜함
미국식 대배심 등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할 때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절대 권력이 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다. 검사는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를 하지 않고 방면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한 기소독점주의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 위의 권력, 절대권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진정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은 사실상 없다.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장의 재테크 무기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뿌리를 둔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빚어지는 폐해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0년여 전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이 사건은 정작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된 반면 이를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때때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X파일'을 향한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선을 앞둔 1997년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리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검사는 돈을 뿌린 쪽인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집사역할을 한 이학수 부회장, 친인척이자 언론사 오너인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삿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낮은 수사 의지력이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포장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다,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거셌다.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 측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수금액을 30억원으로 번복했지만 검찰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를 수용했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에서 물러나 미국에 있던 홍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떡값은 개인 돈, 사용처는 사후 보고였다"는 이 회장의 답변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미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배심제도를 기소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처럼 기소 단계에서도 감시자를 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변호사는 9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배심제를 도입할지 논의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당시 삼성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박약한 수사 의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재량'이 '독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X파일사건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 내 항고와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있지만 관행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는 구조적 장치와 기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사우디 4만명 메르스 감염… 거의 모르고 지나

2차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지역사회 전파 우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임신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메르스 감염 의심자들이 지방 곳곳으로 내려간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병원을 넘어선 지역사회 전파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연구팀, 발병지 첫 대규모 조사 대부분 '증상 없어' 발병 사실 몰라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려도 모르고 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르스의 발병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4만명이 자신도 모른 채 메르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외신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가 알려진 9일 국내에서는 2차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감염 의심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영자신문인 더내셔널 7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본 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의학 전문지인 랜싯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지난 10년간 사우디에서 약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드로스텐 교수팀은 사우디에서 1만여명 가량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메르스에 대한 항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명의 혈액에서 항체가 발견됐다. 15명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주민이다. 특히 낙타와 일하거나 낙타고기를 취급하는 주민들의 경우 140명 가운데 5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 항체의 존재는 메르스 감염을 의미한다.

드로스텐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국민 2730만명 가운데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에는 지아드 메미쉬 전 사우디 보건차관도 포함돼 있다.

드로스텐 교수는 메르스 항체의 생존기간을 5~10년으로 봤다. 사우디는 3년 전 메르스가 발병했다. 사우디에서는 1016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고, 이중 447명이 죽었다. 사우디는 당시 메르스 위기를 넘겼지만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드로스텐 교수는 감염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드로스텐 교수는 "우리(과학자들이) 메르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해상도는 아직도 매우 조악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사실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례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메르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인구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 발병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메르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문은 과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로 통한다고 전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스로 韓 국제적 고립 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확산되면서 한국이 국제고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주의하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한국이 메르스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발병 사태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고, 한국이 중동 밖에서 메르스가 가장 크게 발병한 지역"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러시아 보건 당국도 8일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 한국으로 여행을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9일 전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8일 일본 마술연맹이 13~14일 서울경마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승마대회의 선수단 파견을 한국의 메르스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여행자의 자발적인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여행 금지국이나 여행 자제국으로 공식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홍콩 당국은 8일 메르스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여행자와 한국 체류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중국·홍콩내 격리 한국인 10명 격리 '해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한국에 대해 9일(현지시간) 여행경보를 발령한 홍콩의 국제공항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이날 한 승객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중국 출장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K씨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한국인 10명은 이날 격리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찜찜한' 종결선언

미국인 22명 '감염없다' 판단 목성 프로젝트 해명 없어

주한미군이 최근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 등 22명이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것과 관련, 이들이 탄저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최종판단이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탄저균 실험으로 인한 파장에 비해 찜찜한 뒤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 5월 29일 해당 부대에서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당시 22명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조치를 했고 그 이후 어떤 증상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주한미군 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더 이상 증상이 없다(고 했다)"며 "(우리 국방부도) 그래서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미 본토와 오산 기지로 배송됐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같은 달 29일 오산 기지에서 탄저균 배양 실험을 하던 미 공군 5명, 미 육군 10명, 미 육군 군무원 3명, 오산 공군 기지 내 '합동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 소속 미 계약요원 4명 등 22명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는 10일 예정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신임 태평양사령관 간 면담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태평양사령관과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건은 무관하다"며 "그 문제는 의제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아있는 탄저균의 오산기지 배달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내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한국이 미군의 실험을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목성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은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9개 주 등 66곳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일에는 탄저균 배송 사고 지역이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51개국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펜실베이니아와 로드 아일랜드주가 추가됐다.

/정윤아기자 yoona1@

메르스版 착한 사마리안병원 어찌 살리나

환자 기피 병원 속출 속 원칙 지킨 병원들 되레 낙인
원칙 지키다 희생된 '세월호 재판' 우려… 대책 시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치료하며 정의를 실천한 병원들이 도리어 메르스 병원 딱지가 붙어 위기에 처했다.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존폐 위기에 놓인 병원이 여럿이다. 원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랐던 병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칙을 지킨 행동이 되레 죽음으로 이어졌던 세월호 참사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속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이 있는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고 부담 경비에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의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메르스 진료와 관련해 휴업 등 불가피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어느 곳보다 지원이 절실한 곳은 원칙을 지키다 피해를 본 병원들이다.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고 알려진 인하대학교병원의 최모 교수는 지난 5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우리 병원은 지난 화요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며 "알량한 의료인의 사명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병원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 병원의 결정은 감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렇게도 넓은 것이었느냐"며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실천했던 우리 병원은 요즘 너무나 어렵다"고 했다. 수술 취소 건수도 늘고 있으며 수많은 입원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최 교수는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됐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병원 24곳에 포함된 서울 중구의 윤창옥내과의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윤창옥 원장은 SNS를 통해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르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니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정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개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메르스 여파, 한산한 병원 9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감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금 자료'가 뭐길래… 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 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오후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을 빚으며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만이 자리에 앉아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건대병원 메르스 대응 신뢰얻어 다행"

김경희 이사장, 상황 점검

건국대 김경희(사진) 이사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건국대병원(원장 한설희) 일반 외래환자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9일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메르스 대응센터에서 양정현 의료원장(의무부총장)과 한설희 병원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격리병동과 응급실을 둘러보고 메르스 대응 비상근무 중인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는 등 메르스 대응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건국대병원이 미리 대비하고 연습한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얻은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의료진이 온 힘을 모아 메르스를 퇴치하고, 건국대병원을 아껴주고 믿어주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오직 환자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A환자가 삼성서울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이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메르스 증세를 확인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머물렀던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들을 신속히 격리하고 명단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의료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의 총력 비상근무를 통해 메르스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일반 외래환자의 진료는 정상가동중인 만큼, 일반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 '특사 의혹' 화살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 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업 과정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

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 단서가 없는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세월호 구명보트 부실 점검업체 대표 '집유'

세월호에 구명보트를 부실 점검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5)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모(49)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도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양모(41)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에게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사장은 부실 점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면서도 "사장 지위에서 정비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주로 수주 업무만 맡았고 팽창식 구명보트에 대한 부실 점검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송 사장 등 3명에 대한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송 사장, 조 이사, 양 차장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 구명보트를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홍원기자 hong@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부패 비리 단속

경기도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지역 간판을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 거리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명은 사진을 조작해 새 가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 보조금을 되돌려줬다.

경찰청은 이같이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 단속해 2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 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홍문종 의원이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시간 조사… "최선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추궁할 결정적 증거 확보 못한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마무리 지었다. 조사실을 나선 홍 의원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세 번째 소환 대상자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과거 여러 차례 만난 목적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를 직접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거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개인 메모, CCTV 영상 등 홍 의원을 추궁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 대선 때가 아닌 시점에 홍 의원이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금품거래는) 없다. (대선 자금 관련 부분도) 전혀 문제없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이상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 수사도 홍 의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금품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미란기자

서울아산병원도 메르스 감염… 20대 환자 발생

사망 7명·격리 3000명 육박
추적조사 허점 가능성도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사진)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

메르스 확진자가 하루만에 8명이 추가되면서 9일 총 환자수는 95명, 격리자는 2892명으로 늘어났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판막질환 환자가 사망했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 1명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8명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와 각각 5월26일 서울아산병원, 5월28일 여의도성모병원 병실에서 접촉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추가된 92번 환자(26)는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6번 환자(7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6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후 이달 1일 사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3년 기준 2715병상을 갖춘 부동의 1위로 연평균 8156억3000만원의 진료비(월평균 679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할 만큼 거대 공룡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1966병상에 매출은 2위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보다 연평균 진료비가 2000억원 가량 적지만 연간 총 진료비 수입은 6343억원(월 평균 52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구'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잇따라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처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그간 6번 환자가 응급실에 10분간 머물렀다 떠났다고 말해 감염 경위도 의문이다.

병원에 따르면 이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지만 양성반응은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26일 오후 6시쯤 왔다가 응급실 사정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료도 받지 못했다"며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머물다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나중에 메르스 환자임을 알고 당시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음날 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6번 환자가 확인된 후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추적 과정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당국이 지난달 26일 6번 환자 이후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 모니터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월3일),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월5일), 김제 한솔내과의원(6월5일)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과 병원에 격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월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월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월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했다"며 "경유 병원과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성소수자 인권개선 퍼포먼스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운동가 '서훈 취소'

'허영호 선생' 친일행위자 명단과 인명사전에 포함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했던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허 선생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영호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 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허 선생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홍원기자 hong@

메르스 사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기자 수첩
연미란 <사회부 기자>

대검찰청 앞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있다.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디케의 형상은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양산되자 정부가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경은 일제히 "찌라시(정보지)를 재미로 퍼뜨리는데 그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유포자 엄단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무언가 숨기거나 그런 의혹이 들 때 어김없이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설에 오른 홍가혜씨가 '정부가 구조·수색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빚어졌다. 홍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은 줄곧 관련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해당 병원에 찍힐 낙인과 인근 주민들의 공포 확산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유언비어는 확대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회적 혼란의 시발점은 유언비어가 아닌, 정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라는 얘기다. 불신을 조장해 놓고 합리적 의심에 나선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디케를 앞세워 정의로 포장된 체면 차리기에 급급했다.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9일 오후 1시 현재 확진 환자는 8명이 추가돼 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증가했다. 감염 의심자와 격리자는 각각 1632명, 2508명에 이른다.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이 세월호 이후 생겨난 한국 국민들 사이의 공포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적 이미지 문제"를 이유로 메르스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이미지 훼손'의 주범이 누구인지 정부만 모르고 있다.

메르스 확산에 '광주U대회' 흥행 빨간불

141개국 1만3000여명 참석
메르스 사태 진정 안되면
선수 파견 취소 가능성도

다음달 3일 개막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 성화 봉송에 돌입했다. 그러나 9~10일 이틀간 경기도를 지나는 대회 성화는 모두 차량으로 옮겨진다. 메르스 확진자가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당초 성남~수원~화성~평택을 지나는 경기도 158.5㎞ 구간에서는 200여 명의 주자가 성화 봉송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메르스가 이달 중순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막대한 대회 차질이 우려된다. 대회에는 이날 현재 141개 나라에서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8개 나라에서 49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이 메르스로 인해 참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참가 취소를 밝힌 국가는 없지만 지난

5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황웨이저(黃偉哲) 등 일부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대만 체육서 측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안 되는 흥행카드인 북한 응원단 참가나 성화봉송 등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직접효과가 전국적으로 생산 3조7000억원, 부가가치 1조5000억원, 고용 3만3000명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할 경제적 직접효과 역시 생산 1조9000억원, 부가가치 9000억원, 고용 2만 명이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이런 특수를 놓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위 대변인은 "현재까지 참가 취소 의사를 밝힌 국가는 전무하며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참가 의사를 확실히 했다. 108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응원단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대회 의료담당자도 "중동 국가의 선수진에 대해 명단을 확보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관리하며 검역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상 의심자는 곧바로 지정 병원에서 관리된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에 발열체크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초기에 이상증후를 보이는 선수 등을 걸러내기로 했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도 구입했다. 발열과 기침 등 선수단 동향 관리는 물론 1일 2차례 발열 체크 등 정밀 검진도 할 계획이다.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5개 자치구에도 비상방역 상황실을 설치했다. 대회 관리 지침으로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 즉각 입실조치하고 격리시설도 확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에 이르기 때문에 입국 전 예찰 활동에 한계가 있고 대회 기간 환자 발생 때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공항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광주에 도착해 선수촌에 들어가 생활하는 동안 감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담당자도 "잠복기에 대해서까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의료진에 메르스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사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마스크 품귀현상… 가격 폭리 등 피해 속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마스크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가격 폭리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9일 직장인이 몰려 있는 을지로 일대의 약국·편의점·드럭스토어 등에서는 마스크 품절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은 구매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다. 가는 곳마다 재고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고, 내일이면 (재고가)들어오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조 업체에서도 판매할 물건이 부족한데 무슨 수로 다음날 재고를 확보하냐"며 푸념하기도 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마스크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마스크의 경우 대체로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취하고 있어 대리점들이 마음대로 공급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메르스 사태로 공급이 딸리자 일부 약국들은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팔고 있었다.

실제 한 쇼핑몰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3M 방진마스크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제품은 평소 3000원에 판매돼 왔다. 또 다른 약국은 크리넥스 마스크를 평소 보다 2000원 비싸게 팔았지만 이마저도 품절돼 현재 추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유통 채널과 직접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들이 물건을 대주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뛰고 있으며 이번 뿐만 아니라 황사 때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자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옥션의 웰킵스 황사마스크 판매 페이지에는 취소·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이 제품은 총 255개가 팔려 나갔다. 대부분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주문이 자동취소돼 환불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한 구매자는 "어렵게 산거였는데 재고가 없으면 미리 품절이라 띄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G마켓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량 부족으로 자동 결제 취소가 된 한 구매자는 "진작 말했으면 다른 거라도 샀다"며 불만 글을 게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 예측이 어렵다"며 "메르스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나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한화·대우·대림, 뉴스테이 선점나서

사업다각화 모델로 각광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내집마련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뉴스테이)에 대림산업·한화건설·대우건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LH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 기업형 임대리츠 1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 1차 사업의 3개 지구는 화성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다.

앞서 이번 사업의 공모 결과 5개 건설사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성 동탄2 공동주택 부지에는 대우건설과 한화건설·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다. 위례신도시 연립주택 부지에는 대림산업·대림아이엔에스 컨소시엄과 키움증권·한양·에이치알엠씨 컨소시엄이 각각 신청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주택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이 단독으로 사업 신청서를 냈다.

이들 참가사들은 뉴스테이가 사업다각화 전략에 적합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설계·시공·판매까지 맡아서 하다보니 아파트 브랜드 홍보효과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변경도 참여 건설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뉴스테이를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대림산업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대림산업과 키움증권이 사업 신청서를 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 부지. /뉴시스

당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건설사들이 참여할수록 재무구조상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수익성 때문에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대림동, 신당동, 수원 권선동,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해 뉴스테이 5529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6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한화건설은 수원 권선동에, 대림산업은 인천 도화지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건설은 주택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한 리츠로 수원 권선동에 짓는 아파트 2400가구를 매입,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림산업도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도화지구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해 8년 이상 임대주택 2107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고객님의 수익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0년치 월세 1억 6천만원 지급!

(일부세대 한정, 1년 단위 지급)

매년 1,600만원씩 신탁사에서 先 지급

(잔금납부 시 적용되며 호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GOLDEN TULIP
JEJU NOHYEONG HOTEL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서울 02)760-1800

선착순 분양!

한라산
신라면세점 | 도보 1분 |
그랜드호텔 카지노
드림타워 | 도보 5분 |
더호텔 카지노
바오젠거리 | 도보 5분 |
J D C 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공항 | 차량 8분 |
노형오거리

타 호텔과 가치 비교

구분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타 호텔
입지	제주시 노형동 (중심상업)	서귀포시 성산읍
공시지가	594만 원	64만 원
평당시세	2,500~3,000만원	150~200만원
분양가	1억 7천만원대	1억 7천만원대
브랜드	4성급 명품호텔	기타
인프라	제주의 강남 지역 노형오거리,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JDC면세점 더호텔 및 그랜드 호텔 카지노, 쇼핑 밀집지역	나대지

김부성 박사의 부동산 무료 특강

주제 : 초 저금리 시대! 新 부동산 투자법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 진영빌딩 2층(9호선 선정릉역 4번출구)
예약 : 02)760-1804 ※좌석이 한정되어 전화예약 필수 ※선착순 예약하신 30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강사 :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김부성 박사

학력 :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연세대 졸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 스터디〉운영자
저서 : 하우스푸어에서 살아남는 법 外 10여권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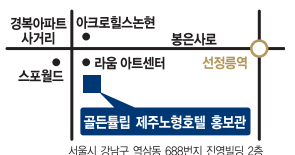
객실등기분양 **총 352실**

시행
엔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
NO HYOUNG INDUSTRY DEVELOPMENT CO.,LTD

분양문의
02)760-1800

청약계좌 ▶ 청약금 100만원
우리은행 1005-002-542904
예 금 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 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번지 진영빌딩 2층

책임준공
신탁
SAENGBO (주)생보부동산신탁

호텔운영
CITY ISLAND (주)시티아일랜드

※상기 계약자 혜택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명시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 운영사가 수익금(임대료) 지급을 보장하며, 생보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업무(관리계좌 입금금액)에 한하며 투자 수익금 미지급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KB금융 깜짝실적… 윤종규 리더십 빛났다

中企지원강화·희망퇴직 등 체질개선 드라이브 효과

윤종규(사진) KB금융그룹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이 리딩뱅크 도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간 KB의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M&A 잔혹사를 끊고 LIG손해보험 인수를 코 앞에 둔데다 대규모 희망퇴직과 계열사 간 협업강화 등으로 체질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는 수장 취임 후 불과 반년 새 나타난 효과로 여기에는 윤 회장의 조용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 현장경영·중기 지원 강화…"효율성 제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구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했다.

기술신용대출 확대에 힘써온 행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모두 4조3000억원으로 전체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25조8000억원 중 16.6%에 달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1위, 전체 은행에서는 기업은행에 이어 2위다.

특히 국민은행 구로 종합금융센터는 국민은행 내 기술금융 실적 1위 지점으로 지난 10개월여간 총 31건, 406억원의 기술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에 발맞춘 결과다. 일반 고객과 소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지원그룹'을 신설했다. 또 '원스톱(One-Stop) 서비스'와 'KB 와이즈(Wise) 컨설팅'을 도입, 애로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70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배 증가한 규모다.

KB금융의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6050억원) 또한 전년동기 대비 68.4% 늘어나며 6년만에 신한금융(50921억원)을 뛰어넘었다.

회장·행장 겸직에 따른 지배구조 안정화와 현장과 효율성을 중시하겠다는 윤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실제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우수고객을 직접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소통창구인 'CEO와의 대화' 코너도 개설했다.

◆ 계열사 시너지·희망퇴직 효과 빛 볼까?

계열사 간 결합도 눈에 띈다.

KB금융은 지난 3월 '핀테크허브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기업을 도우며 은행과 증권 등 모든 계열사가 참여해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KB투자증권과 복합점포 1호점인 '청담 개인자산관리(PB)센터'를 열었으며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과 손잡고 체크카드 고객에게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5년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도 들어갔다.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직원 1000명과 일반직원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신청 대상자 중 20.4%에 해당하는 1121명이 지원했다.

윤 회장은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등 2분기 성장률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KB의 하반기가 더욱 기대된다"며 "2분기 명예퇴직 신청으로 약 3363억원 비용이 발생함에도 비용 효율화 전략과 사회적 문제인 청년 고용 확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저원가성 수신의 확대와 결제계좌 이동제를 앞두고 국민은행으로 저원가성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3분기부터 마진 하락세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이 43% 보유한 대우증권의 연내 매각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향후 LIG손보와 더불어 대우증권까지 인수해 성공할 경우 자산 기준 국내 1위 규모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나게 되고 여기에 비은행의 자산 비중도 20%를 넘기며 경쟁사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DGB생명, '사랑의 PC나눔' 1천여대 기증 DGB생명은 9일 서울 본사에서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산하 사랑의 PC보내기운동본부에 PC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운동은 사회단체, 기관 기업, 개인으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나눔 활동이다. 이날 오익환(오른쪽) DGB생명 대표와 김정우(왼쪽) 사랑의 PC보내기운동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DGB생명 제공

4월 가계대출 10조원↑… 사상 최고치

올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을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결제 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지난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75%로 내린 점과 빚을 내 집을 사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대부분인 8조원을 차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은행대출이 8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취급했으며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액은 1조4000억원으로 나왔다.

/백아란기자

"年 10만원에 무료항공권·치킨할인까지"

우리카드, 실속형 프리미엄 '그랑블루' 출시

여행을 좋아하는 자영업자 이지은(34·여)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카드 3장을 모두 잘라버렸다. 엇비슷한 혜택에 흥미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대신 단 한 장의 '매스티지 카드'를 신청했다. 그는 매스티지 카드 하나로 영업세무신고부터 무료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치킨집 할인까지 3장의 카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카드는 연회비 10만원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랑블루'카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랑블루'는 일반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의 중간 단계인 '매스티지(Masstige)'카드로 VVIP 카드에 비해 저렴한 연회비를 내면서도 공항 라운지나 특급 호텔 할인 등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른바 실속형 프리미엄인 셈이다.

연회비 상당의 선물이 주어지는 기프트 서비스에는 ▲국내선 동반자 1인 왕복항공권 ▲10만원 상당 외식이용권 ▲CJONE 포인트 10만점 ▲롯데시네마 관람권 11매 ▲8만원 상당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8만원 상당 SK 주유소·홈플러스 바우처카드 ▲키자니아 2인 이용권 ▲5만원 상당 외식이용권 등 7가지가 포함됐다. 고객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많이 쓸수록 더 높은 포인트를 적립하며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결제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형태다.

예컨대 그랑블루의 경우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조건없이 0.5%, 업종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 1.5~2% 모아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때 포인트 현금자동입금 서비스를 적용해 모아포인트 누적잔액이 10만점이상 시, 10만원 단위로 결제계좌에 자동입금되는 것이다.

국내외 여행 특화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이는 해외·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해 1.5% 모아포인트를 제공하며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라운지 무료이용 ▲해외 데이터 로밍 1일 무료 이용 ▲국내 특급 호텔·공항 발렛파킹 ▲골프장 최대 40% 할인 등 우대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관련 보험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호텔·리조트·카라반·글램핑 2박 시 1박 무료 ▲해외 패키지 여행 최대 10% 할인 ▲국내외 호텔 및 콘도 최대 10% 할인 ▲제주도 렌터카 24시간 무료 제공 ▲KTX 10% 할인 ▲국내 섬여행 5%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 업계 최초로 치킨업종 10개 브랜드와 피자 4개 브랜드에서 10% 청구할인, 전국 영화관 3000원 청구할인, 서울·대도시 주차장 주말 1일 무료 주차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인 'Win-Tax'도 마련됐다.

윈-택스는 영업세무신고나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와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매출·매입 통합관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환급 지원, 세무 통합 관리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전환해 입금해주는 서비스나 치킨업종 특화 할인, 해외직구 보험 무료 제공 등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서비스가 많다"며 "고객보다 먼저 고객의 필요한 부분을 혜택으로 담아내고자 이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거침없는 지방광역시, 매매·거래·분양 '싹쓸이'

수요층 취약·가격 급등에 '거품' 우려도

지방광역시 주택시장의 인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수도권보다 1년 앞서 회복세를 탄 데다 수요도 한정된 탓에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기존 주택시장을 비롯해 분양시장도 호황을 누리며 전문가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9일 KB국민은행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5대 지방광역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883만원이다. 지난해 5월 815만원과 비교해 1년간 8.35%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4.07%,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4.43% 뛴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거래도 활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현재 5대 지방광역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는 1만9082건이다.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1월(1만4516건) 이후 31.45% 늘었다.

매매·거래시장의 강세는 높은 전세가율에서 기인한다. 5월 말 지방광역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3%로, 전국(71.5%)과 수도권(72.2%)보다 높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7.5%에 달한다. 집을 사지 않고는 못버티는 수준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도 족족 높은 경쟁률로 마감 행진을 벌이고 있다. 5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공급된 34개 단지 중 31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연제 롯데캐슬&데시앙 투시도.

지역별 청약경쟁률도 광주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51.32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 37.57대 1, 대구 37.16대 1, 부산 25.77대 1 순이다. 대전을 제외한 4개 광역시가 전국 17개 시·도 경쟁률 상위 1~4위를 차지한 것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분양된 '광안 더샵'은 1순위에서 평균 379.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4.98㎡B 타입은 무려 1141.67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올해 분양 아파트 중 최고 기록이다.

같은 달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청약을 받은 '아델리움 in 비엔날레'도 평균 경쟁률이 116.37대 1로 집계됐다. 5월 대구 수성구 신천동에 공급된 '동대구 반도유보라' 역시 평균 273.8대 1, 최고 5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2만 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고, 입지·브랜드가 좋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장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건축한 '연제 롯데캐슬&데시앙'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코오롱글로벌이 대구 동구 괴전동에서 '안심역 코오롱하늘채'를,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복산 아이파크'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실수요자라면 매매나 분양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이미 매매가와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기 보다 자금에 맞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5월 부동산 경매 건수 '역대 최저치'

저금리·부동산시장 호황에 물량 급감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경매 건수와 낙찰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 부담 감소와 일반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9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이 5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달 경매진행건수와 낙찰건수는 각각 1만1426건, 444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8.7%(진행건수), 19.7%(낙찰건수) 감소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전달 대비 908건이 감소한 5487건이, 지방에서는 1717건이 줄어든 5939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낙찰건수도 수도권은 536건 감소한 2097건, 지방은 553건 감소한 2350건을 각각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수도권·지방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은 0.4%p 상승한 73.5%를 기록했다. 지방은 4.2%p 상승한 72.9%였다. 낙찰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3개월 연속 지방 낙찰가율을 상회했지만 지방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난해 7월(0.5%p)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4098건, 업무·상업시설 2586건, 토지 4368건, 공업시설 367건의 경매가 각각 진행됐다. 낙찰건수는 주거시설 1975건(낙찰률 48.2%), 업무·상업시설 656건(25.4%), 토지 1688건(38.6%), 공업시설 125건(34.1%) 등이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감소로 물량이 적어진데다 부동산시장 호조세로 일반부동산 거래량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저금리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는 한 당분간 경매 물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전국 최고 낙찰가는 경기 광주 오포읍 소재 골프연습장으로 감정가의 134.6%인 179억999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를 기록한 물건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인근 임야 4959㎡로, 응찰자 66명이 몰려 감정가의 1060%인 5억2566만원에 낙찰됐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삼성물산 시빌사업부 김응태 상무(왼쪽 첫 번째)가 홍콩개발부 폴 챈(Paul Chan, 가운데) 장관으로부터 기념패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홍콩서 최우수 모범 현장상 수상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의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홍콩 건설시장에서 현장운영의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돼 글로벌 수준의 사업수행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최근 홍콩정부(DEVB)와 홍콩건설협회(CIC)에서 주관하는 21회 모범 현장상(CCSA, Considerate Contractors Site Award)에서 SCL 1109 현장이 비정부발주 공공분야 신규 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Gold Award)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SCL 1109 현장은 홍콩 구룡반도 남쪽지역인 샤틴~센트럴 라인을 연결하는 총 17km 지하철 구간 중 2.2km 길이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전체 공사금액이 5억89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홍콩 모범 현장상(CCSA)은 안전, 현장관리, 법규준수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홍콩정부에서 주는 건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삼성물산 SCL 1109 현장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홍콩지하철공사가 주관하는 '2014년 하반기 안전대상(Safety Award)'에서 전 부문 1위에게 주는 종합대상(Grand Safety Award)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도 종합대상과 사고발생지수 최저등급수상(Lowest RAFR Award) 등 3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바 있다.

SCL 1109 현장은 예전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이 있었던 곳으로 주변에 40~50년 된 주거·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에 홍콩지하철공사 122개 프로젝트 중에서도 난공사로 꼽히는 구간이다.

김응태 삼성물산 시빌사업부 상무는 "이번 수상은 발주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던 것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라며 "현장 무재해 기록을 완공까지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선옥기자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평균 청약경쟁률 161 대 1

대우건설이 성남 위례지구에 공급하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가 평균 161.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이후 수도권 지역의 역대 최고 기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6블럭 83A타입의 203.34대 1일이었다.

이 단지는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620가구와 스트리트몰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3㎡A타입 593가구, 83㎡B타입 27가구로 구성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731만원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5일, 지정계약기간은 22~24일이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10월이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8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문정법조타운과 KTX수서역세권개발도 예정돼 있다.

/김형석기자

대우건설이 성남 위례지구에 공급하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가 지난 8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을 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호재 만발’ 현대리바트, 하반기 성장 가속화

가정·건설사 특판 고른 성장 코스피200 신규 편입 기대감

현대리바트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리바트스타일샵 창동 전시장’을 지난 4일 오픈했다. /현대리바트 제공

‘현대리바트’가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코스피200 신규편입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리바트스타일샵’ 확대를 통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밸류에이션(가치대비 평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리바트의 주가는 전일대비 4.38%(2200원) 오른 5만2400원에 마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가정용·건설사 특판의 고른 성장세와 코스피200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된 뒤 B2C 부문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화됐다”면서 “특히 최근 추가 출점을 계획 중인 스타일샵을 통해 가구·주방가구·아동·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전략은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고 관측했다.

현대리바트는 최근 서울 도봉구 창동에 8번째 직매장인 ‘리바트스타일샵 창동 전시장’을 열었다. 잠실점에 이어 올해 두번째 스타일샵. 향후 4개의 직매장을 연내 오픈할 계획이다. 직매장은 연간 80억~100억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다.

김 연구원은 “주방용 가구는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홈쇼핑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온라인몰도 올해 15%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 대해서도 범현대가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올해 대형건설사 신규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빌트인 가구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범현대가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현대리바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기업간 거래(B2B) 매출이 늘고, 직매장 점포 확대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투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B2B는 아파트 입주 물량에 연동해 움직이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리바트의 실적은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개선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대리바트는 낮은 부채 비율과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감한 출점 전략으로 재무 위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코스피200 신규 편입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펀드가 많다 보니 신규 편입 종목에 기관투자가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말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대리바트 등 13개 종목을 오는 12일부터 코스피200에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한 차례, 6월 동시만기일 다음날에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지난해에는 7개 종목을 교체한 바 있다.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 편입되려면 업종 내 누적 시가총액이 상위 70% 이내, 시총 순위가 상위 90% 이내여야 한다. 반면 거래대금 순위가 하위 15%에 해당하면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혁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20조~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규 편입된 종목의 유동성 증가와 자금 흐름 유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연기금, 삼성물산 백기사로 등장할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명부 폐쇄

엘리엇 이어 일성신약도 합병 관련 문제점 공감

‘1대 주주’ 국민연금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9일 유가증권시장이 마감되며 다음달 17일 열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주주결의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명부가 폐쇄됐다.

이날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인 오는 11일로부터 2거래일 전인 9일까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남은 궁금증은 누가 확정된 대주주이며 합병을 강행하려는 삼성과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확정된 주주들이 누구에게 우호적일지다.

증권가에서는 엘리엇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한다면 9일 이전에 지분을 시장에 매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삼성물산 매도량을 흡수하며 47만6600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전날 33.70%였던 외국인 지분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거래일이 되는 11일까지는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엘리엇이 다른 펀드 등을 이용해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 엘리엇은 이날 삼성물산에 주주총회의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엘리엇의 행보가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엘리엇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엘리엇은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엘리엇에 우호적인 주주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 중인 일성신약의 윤석근 사장은 이날 한 매체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엘리엇 등이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사의 자산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1대 0.35로 정한 합병 비율은 잘못됐다”며 “일성신약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대 주주인 국민연금(9.98%)은 여전히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 얘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하이투자證, 최대 연 8% 수익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이 10일부터 12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836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 85%(18개월,24개월), 80%(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50%(연 7.5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외국인, 5월 채권 순투자 27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채권시장에 3조1970억원을 순투자, 2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5월 3조1970억원을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의 3조5000억원 이후 27개월만의 최대 규모다.

순매수 규모는 전월보다 7000억원 증가한 4조4353억원, 만기상환 규모는 2조4000억원 감소한 1조2387억원이었다.

스위스(1조1258억원), 룩셈부르크(1조25억원), 중국(4034억원) 등이 순투자 상위권에 포진했다.

말레이시아(5800억원)가 최대 순유출국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노르웨이(1240억원)와 영국(59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순투자(2조1347억원)로 전환했고 아시아(2343억원)와 중동(1440억원)도 순투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105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8조9000억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7.8%), 중국 17조1000억원(16.1%), 룩셈부르크 12조8000억원(12.1%) 순이다. /김민지기자

거래소, 메르스 확산 우려 전국순회 설명회 일부 취소

한국거래소가 메르스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파생상품시장 신상품 투자설명회’ 일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9~18일 열릴 예정이던 울산, 창원, 수원, 원주, 강릉 등지의 설명회를 우선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이후로 예정된 나머지 지역의 설명회는 메르스 관련 경과를 살펴본 뒤 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외국계 대주주, 경영 전략에 잇단 브레이크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반대에 소액주주도 세력 결집 나서

현대엘 2대 주주 쉰들러 "유상증자 목적 납득 못해"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홈페이지 캡처.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 외국계 대주주의 반대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 주주들이 엘리엇 측에 힘을 실어주자며 세력 결집을 꾀하고 있다.

9일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보유를 공식화한 다음 날인 5일 인터넷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http://cafe.naver.com/black26uz3) 카페가 개설됐다. 8일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800명가량이다.

카페 운영자 '독타맨'은 공지 글에서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주권을 엘리엇 측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카페 회원도 위임 방법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AG가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쉰들러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4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264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다섯 번째 유상증자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4년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도 영업 현금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하면 현금 잔고는 부채를 상환한 후에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시된 유상증자의 목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이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되는 자금이 현대상선을 비롯해 핵심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3년간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4년간 4회에 걸쳐 총 6509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기자본은 2010년 말 기준 6242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3716억원으로 오히려 2500억원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SK, 사회적기업에 법률 문제 무료 지원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 취약한 35개 기업 참여 신규사업 진출·세무 등 상담

9일 서울 종로 SK서린사옥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한 35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지현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왼쪽부터),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문석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추진단 공동대표, 이종수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 추진단 공동대표. /SK 제공

SK그룹이 주도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은 앞으로 경영상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9일 SK에 따르면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법무법인 지평, 공익법인 '두루'는 서울 종로 SK서린사옥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35개 사회적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를 상담·지원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루는 지평이 법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이나 세무문제 등 여러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추진단은 지평, 두루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 가치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등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젝트의 객관성·안정성·체계성도 확립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관계자는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UN글로벌컴팩트 국제무대에 소개돼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법률가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끌어 냈다"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낸 여러 사회적 가치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4월에는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 출범식이 열렸다. /조한진기자 hjc@

삼성전자, 中 LED 조명시장 공략

광저우 국제조명 博 참가 플립칩 등 기술력 과시

삼성전자가 9일 열린 '제20회 광저우 국제조명 박람회'에서 플립칩 기반 COB 패키지를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LED 시장을 두고 현지 업체와 치열한 시장 경쟁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9일 열린 '제20회 광저우 국제조명 박람회'에 참가해 차세대 스마트 조명 플랫폼과 독자적인 플립칩(flip chip) 기술을 공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세계 LED 조명시장은 중국 LED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LED 조명을 접목시킨 스마트 조명 부문에서도 빠르게 부상중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대거 공개하고 혁신적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성전자는 플립칩 기반의 COB(Chip on Board) 패키지 라인업과 지난달 공개한 IoT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조명 플랫폼을 함께 선보였다.

COB 패키지는 발광면적을 대폭 줄여 좁은 광각으로 사물에 조명을 강하게 비춰야 하는 상업용 스팟(Spot) 조명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립칩은 LED 칩 전극을 바로 기판에 부착하는 기술로 금속 와이어 연결 구조가 필요없고 좁은 발광면적으로도 광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구경하세요" 美 아파트에 'LG 스튜디오'

관람객들이 LG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고급 아파트 멧 로프츠에 설치한 프리미엄 빌트인'LG 스튜디오'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고급 아파트 '멧 로프츠(Met Lofts)'에 프리미엄 빌트인 소비자 체험공간인 'LG 스튜디오'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LG 스튜디오'는 오븐레인지, 냉장고, 쿡탑, 빌트인 오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을 포함하는 고급 빌트인으로 가격이 2만 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LG 스튜디오' 신제품 디자인에는 미국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이트 버커스가 참여했다. 모든 제품에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하고 평면 타입의 도어를 채택해 조화로운 세련미를 강조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중 'LG 스튜디오'의 미국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13년 미국에 첫 출시한 'LG 스튜디오'는 작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200여개 유통채널에 진입했고, 올해는 3배 이상의 유통채널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한진기자

기아차 RV, 글로벌 판매 1000만대 눈앞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레저차량(RV) 누적판매 994만대를 달성했다.

기아차는 이달 중 글로벌 RV 누적 1000만대 판매 돌파가 확실시 된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는 1990년 기아차 최초의 RV 차종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록스타'를 출시한 이래 승용형 SUV '스포티지', 미니밴 '카니발' 등을 선보였다.

사측에 따르면 글로벌 RV 누적 1000만대 판매는 기아차 전체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인 3170만대의 약 30%에 이르는 수치다.

RV는 기아차를 부도 위기에서 구한 회생의 주역이다.

카니발, 카렌스 등 RV 차종이 2000년대 초 당시 기아차 전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후 기아차는 2001년 1세대 카니발 II, 2002년 쏘렌토 및 1세대 카렌스 II, 2008년 모하비 및 쏘울 등 본격적으로 RV 차종을 출시했다.

/이정필기자

심리상담·입시자문… 가족친화경영 실천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⑰ 금호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가족 사진을 들고 웃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임산부 보호·불임휴직 등 출산 장려
육아문제 퇴직한 직원 재고용 확대
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근로정책은 2013년 가족친화담당자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9일 금호아시아나 측은 앞으로도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도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모토 아래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한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위해 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오즈의 가족여행', 유아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입시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작년 3월에는 최첨단 교육을 갖춘 교육 시설을 새로 마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업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재경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중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2990가구에 달한다. 우수한 출산과 육아지원 프로그램 덕분이다. 사측은 출산 전 휴직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산부를 육체적 강도가 낮은 근무지로 재배치하는 임산부 보호제도, 불임휴직 등 임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한다.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직원에 대한 여성재고용확대 등 임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원칙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사랑의 도시락 행사, 열정더하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행사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을 선정해 도시락을 전달하는 이벤트다. 주인공으로 선정된 직원의 가족은 주인공 모르게 현장을 깜짝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한다. 또한 현장 탐방과 가족 나들이도 병행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가족과의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열정더하기는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맞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들은 수공예 다이어리, 천연비누, 핸드메이드 쿠키 등 다양한 아이템을 함께 만들거나 스포츠를 체험한다. 직접 만든 아이템은 가족 또는 동료에게 선물해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출산·육아 지원정책

제도	세부 내용
출산 전 휴직	임신 인지시점부터 출산까지 휴직 부여 최대 2년 동안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 출산직원의 78%가 육아 휴직 사용
육아휴직제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복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
임산부보호제도	임산부를 육체적 강도가 낮은 근무지로 재배치하는 임산부 업무 경감
불임휴직	불임 치료를 위한 직원에게 휴직 부여
보육비·학자금 지급	만 6세 취학전 자녀 1인당 10만원, 1인 3자녀 대상 중·고등·대학생까지 전액 실비 지원

공동기획 :

금호타이어, 이색 체험활동… 가족 공감대 형성 앞장

부부·자녀 등 맞춤 프로그램
가족간 화합·배려심 키워

금호타이어 가족과 자녀들이 갯벌버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금호타이어는 매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부부, 자녀, 가족 등 구성원별로 기호와 특색에 맞춰 자녀체험활동, 부부힐링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아버지와 함께 하는 치즈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한 자녀체험활동은 올해 갯벌체험과 모터스포츠 체험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치즈만들기 체험은 작년까지 총 12차례, 약 1540여명의 가족들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함께 치즈를 만들고 직접 만든 피자를 시식함으로써 가족들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갯벌체험은 자녀들에게 생태계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들은 어망 체험, 조개 캐기, 갯벌버스 등을 통해 갯벌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체험한다.

모터스포츠 체험은 자녀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모터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카트를 체험하고 F1 홍보관을 견학하는 등 아버지의 일터에서 만든 타이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부부힐링캠프는 1박2일 동안 부부가 함께 행복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총 4번, 180여명의 부부가 이 캠프에 참여했다.

부부가 손을 맞잡고 상대방의 진솔한 이야기에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며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맞절을 하는 '절명상'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키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양소리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이통3사 "제4이통사 설립 신중한 검토 필요"

미래부 '경쟁촉진·규제합리화 공청회' 개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 통신 요금 인가제 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통 3사는 제4이통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 임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요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 "현 상황에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뚜렷한 답이 없다"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국내 통신시장은 이미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품질과 요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며 "현 상태에서도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제4이통 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성 KT 상무는 "확고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해 새로운 사업자가 있어야 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면 신규사업자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상무는 "결합판매 등 이동통시장 지배력 전이를 먼저 차단해야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지난 10년간 이통 3사의 누적 이익 영업이익률 비율은 8대2대0 수준"이라며 "결합상품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4이통사가 경쟁하기엔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4이동통사 도입과 관련해 "이동시장이 개척할 시장이 없고 개선할 서비스가 없는지, 포화된 시장인지 고민해봐야한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 여부를 떠나 정부가 시장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 형태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통틀어 경쟁 촉진 정책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북경 순의구 제1중학 부속 소학교에서 주니어 공학교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 재능기부 세계로 넓힌다

'주니어 공학교실' 中 북경지역 확대

현대모비스가 사회공헌 활동인 주니어 공학교실을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북경 순의구 제1중학 부속 소학교에서 160여명의 4~5학년생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주니어 공학교실 시범 수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시범 수업은 지난해 중국 내 처음으로 실시한 강소 지역의 주니어 공학교실을 북경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시범 수업 후 하반기 3회, 내년부터는 6회에 걸쳐 정규 수업을 실시해 북경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주니어 공학교실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경에서는 대학생이 강사로 참여했다.

현대모비스는 북경교통대학교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30여명의 주니어 공학교실 대학생 강사단을 구성했다.

이는 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지의 어린이와 융화될 수 있는 강사단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중국 내 우수 인력 풀에 대해 현대모비스의 기업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취지도 고려됐다.

선발된 대학생 강사단은 북경교통대학 교정에서 △태양 에너지 자동차 △누드 헤드폰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자동차 △금속 탐지장치 등 주니어 공학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지역에 9개의 모듈·부품 법인을 두고 있다.

향후 상해모비스와 중국 내 다른 법인에서도 주니어 공학교실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SKT, 美 ITU에서 5G네트워크 청사진 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9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5G 이동통신 표준연구반' 킥오프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진화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5G 아키텍처(시스템 구조 및 설계)를 발표했다.

'5G 이동통신 표준연구반'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의 선행 표준 연구그룹으로 5G 기술 및 아키텍처 논의와 표준화 작업을 위해 지난 5월 ITU 전체회의에서 출범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5G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표준화를 일관성 있고 발 빠르게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발표에서 5G 시스템을 '서비스 · 플랫폼 · 초고속인프라' 3개 체계로 분류하고 ▲고객경험 ▲연결성 ▲지능화 ▲효율성 ▲신뢰성 5가지 가치를 차세대 통신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아울러 5G 시대에는 진화된 형태의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증강·가상현실 기반의 몰입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등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문경기자

KT "사무실 환경 맞춰 IP 골라 쓰세요"

'올레 인터넷 오피스 IP팩'

한 모델이 KT의 '올레 인터넷 오피스IP팩'을 홍보하고 있다. /KT제공

KT(회장 황창규)가 맞춤형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올레 인터넷 오피스IP팩'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피스IP팩'은 사무실 인터넷 회선에 필요한 만큼의 고정IP와 유동IP를 추가해 사용하는 옵션형 부가서비스다.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 주요 이용층이다.

오피스IP팩은 인터넷 회선과 별도로 고정IP와 유동IP의 수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터넷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고 KT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웹서버, CCTV 운영 등으로 고정IP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사용하는 인터넷 상품에 고정IP만 추가하면 된다.

더불어 이 서비스는 '기가 인터넷'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월 4만원인 고정IP 서비스와 월 3만5000원인 유동IP 서비스는 각각 최대 5개의 IP를 이용(약정 3년)할 수 있다. 인터넷이 모바일, TV 등과 결합돼있으면 월 5000원이 추가 할인된다.

KT는 올레 인터넷 오피스IP팩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 고객은 ▲가입 설치비 10만원 면제(3년 결합 약정 시)와 ▲최초 IP 추가 시 단말 30대까지 추가 이용 가능 ▲L2 스위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중소사업자 전용 고객센터(1577-4466)에서 통신환경 상담 및 '오피스IP팩' 가입을 할 수 있다. 올레닷컴(www.olleh.com)과 KT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메르스 공포 편승 '바가지' 상술 극성

마스크 등 위생용품 품귀
"비싸도 없어서 못팔 지경"
편의점 등 입고 당일 매진

메르스사태로 마스크수요가 급격히 늘며 업체들이 물량 공급에 힘겨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인해 마트·약국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마스크가 동이 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얄팍한 상술까지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9일 오후 찾은 용산 A약국은 평소 3000원선에 판매되던 유한킴벌리사의 크리넥스 마스크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크리넥스 마스크는 '오픈프라이스' 가격제로 판매가를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닌 각 대리점에서 정한다. 약사 최모씨는 "지금 같으면 두 배 이상 가격에 판매해도 물량이 없어 문제"라며 "평소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해도 판매할 물량이 없어 크게 이득을 보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편의점 등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며 업계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업체에 발주를 해 오전에 입고되면 당일 오후 중으로 모든 물량이 판매된다. 마트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터진 후 마스크 수요가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입고 당일이 아니면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티켓몬스터 경우도 현재 크리넥스 마스크가 매진됐고 3M사의 마스크도 매진이 임박한 상태다. 메르스 사태 이후 티켓몬스터의 마스크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위메프에서도 직장인이거나 자녀를 둔 3040세대의 마스크 구매가 늘며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11524.5% 증가했다. 편의점 GS25 역시 입고 즉시 마스크가 매진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마스크 판매 업체인 유한킴벌리사와 3M은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기 못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현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본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3M 관계자는 "최대한 공급량을 맞추려 노력 중이지만 너무나도 늘어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테스코, 지난달 홈플러스 매각 논의

주관사 선정 등 매각 주도
무디스 경고에 정리 불가피

홈플러스의 주인인 영국 테스코 본사의 임직원들이 최근 홈플러스 최고위층 경영진을 만나 매각에 대해 논의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테스크 본사 임직원이 이례적으로 방한해 일주일간 머물며 도성환 사장(사진)과 일부 고위층을 만났다"며 "매각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관사를 비롯해 매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영국 본사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매각설에 휩쌓였지만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었다.

매각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영국 테스코 본사의 절박한 사정에서다.

테스코는 지난해 63억8000만 파운드(약 10조원)의 순손실을 내며 1919년 창사 이후 96년 만에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테스코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매겼다. 테스코에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정크기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경고까지 보내면서 기존 사업 정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매각 예상가격은 최소 7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4일 영국 선데이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이 홈플러스를 40억 파운드(약 6조5561억원)에 인수하겠다고 테스코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추정치다.

매각 방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인수전은 대형 사모펀드(PEF)들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유통회사가 인수하기에는 덩치가 크고 독과점 규제에 걸릴 수도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매물로 나온다면 모두가 관심은 있어 하겠지만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규제로 현실적으로 전체 인수는 쉽지 않다"며 "사모펀드가 먼저 매입한 다음 인수한 사모펀드가 시간을 두고 쪼개 파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홈플러스를 매입한 후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는 KKR, 칼라일, CVC 파트너스, TPG, MBK파트너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로이터는 이날 "현대백화점이 테스코 한국사업부(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홈플러스 본사,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한 예방활동 9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본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전 임직원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하이마트쇼핑몰, LED TV 600대 특가 판매

시중가 대비 절반
배송·설치비 등 무료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LED TV 600대를 특가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가격은 32인치 21만9000원, 42인치 36만9000원, 50인치 49만9000원으로 비슷한 사양의 시중제품보다 거의 절반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벽걸이형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재비 3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모든 배송비와 설치비는 무료다.

32인치 모델은 HD급, 42인치와 50인치 제품은 풀HD급 해상도를 지원한다. USB를 연결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제조사는 웨스팅하우스코리아로 전국 4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편리하게 AS(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재훈 롯데하이마트 영상가전팀 바이어는 "실속형 TV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입점 기념 특가 판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AK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 단독 판매

AK플라자(대표 서광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AK몰이 휴대폰 선택약정할인 상품을 온라인 최초로 단독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 후 20% 요금할인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늘어나면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5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AK몰 모바일스토어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최대 10% 청구할인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OK캐쉬백·AK마일리지·통신사 할인 등 제휴 포인트·적립금 사용 등의 혜택과 함께 20%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AK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 할부이자(5.9%)를 지급하는 일반 개통과 비교할 때 약 34만원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일찍 온 무더위에 보양식 수요 급증

일찍 다가온 여름 날씨에 여름철 보양식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9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에 따르면 마트 내 5월 보양식 관련 매출은 전복이 전년 대비 13.4%, 닭고기가 44.6%, 장어는 410.6% 가량 급증했다. 특히 장어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5월 평균 최고 기온은 25.1도로 평년 23.3도보다 1.8도 높았다. 일교차는 12.8도로 평년 11.8도 보다 1도 높아졌다. 예년보다 더워진 날씨와 커진 일교차로 보양식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요에 롯데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보양식 먹거리를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가뭄 극심…배추값 급등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배추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채소코너. /연합뉴스

'제빵왕' 美 입맛 잡았다

주류상권 매장 적극 확대
하반기 가맹사업 시작도

국내 제빵업계를 평정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올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만 3개의 점포를 냈다. 이 지역에서만 총 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2002년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200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1호점을 열었다. 추후 10년여간 동부와 서부에 직영점을 운영하다 2013년부터 뉴욕 맨해튼 주류 상권인 타임스스퀘어·미드타운 등에 진출했다. 현재 미국에서 4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최근 맨해튼 주요 상권에 선보인 매장이 흑자를 내는 등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실제로 미국법인은 2012년 387억원, 2013년 905억원, 지난해 10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도 큰폭으로 개선돼 외형 성장 뿐 아니라 내실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미국 맨해튼 57번가점. /SPC그룹 제공

이처럼 파리바게뜨가 미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는 현지화 전략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맞게 패스츄리와 크라상·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식사용 빵이 주류이고 커피가 생활화된 나라인 만큼 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본토 방식대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SPC그룹은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파리바게뜨의 가맹사업도 시작한다.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1000개 매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커리사업에 있어 미국은 글로벌 브랜드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통한다. 가장 크고 유행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뉴욕의 소비자들에게 검증을 받으면 세계화에 유리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맨해튼의 주요 상권에 진출하며 현지인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사랑 받는 브랜드를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의 국내 6000여 개 매장과 프랑스·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해외 5개국에 1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BBQ, 배달원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메르스 안심 캠페인 실시

치킨 프랜차이즈 BBQ(회장 윤홍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비큐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비큐 안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비비큐는 메르스에 대비한 매장 운영 규칙을 전 가맹점에 공유하고 주방과 카운터에 손세정제를 비치해 매장 내외부 출입 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 시에는 배달 사원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휴대용 손세정제를 소지하도록 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손잡이와 배달 박스를 위생용액으로 수시로 세척할 것도 당부했다.

비비큐는 QCS(Quality·Cleanliness·Service) 전담팀의 인력을 보충하고 슈퍼바이저를 통한 관리 체제를 활성화 해 이번 캠페인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경주 BBQ 국내사업부문의 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메르스 관련 이슈로 배달음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매장과 가정에서 안심하고 BBQ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이번엔 '자몽'… 과즙 소주시장 경쟁 후끈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
과일리큐르시장 본격 진출

롯데주류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14도)'의 인기에 하이트진로도 과즙 소주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과즙 소주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자몽 과즙을 넣은 '자몽에이슬'을 11일부터 생산한다고 9일 밝혔다.

자몽에이슬은 알코올 도수 13.0도의 리큐르 제품이다. 자몽은 덴마크 다이어트 대표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상큼한 기분, 가벼운 이슬'을 모토로 '자몽에이슬'을 젊은층과 여성층을 대상으로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과일리큐르 시장으로의 본격 진출을 계기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오랜시간 축적한 양조기술과 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맛과 보장된 품질력을 통해 과일리큐르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계절밥상, 여름 신메뉴 16종 출시

오리·문어·오징어 사용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계절밥상은 오리·오징어·문어 등을 사용한 여름 신메뉴 총 16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리는 예로부터 여름에 즐겨먹던 보양식이며 오징어와 문어는 영양이 풍부해 더위에 빼앗긴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여름 신메뉴로 국내산 오리고기를 우동면과 함께 간장 소스에 볶은 오리 볶음면, 오리와 된장 들깨를 듬뿍넣은 광주식 오리탕(인사동 비비고 계절밥상 제외)등을 선보였다.

제철을 맞아 국내산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깊게 끓여낸 감자 된장국, 감자 채소 버무리, 감자 옹심이 국수를 출시했다. 또 지난해 여름 메뉴로 큰 호응을 얻었던 오디 증편 채소 무침과 오디빙수도 내놓았다.

계절밥상 관계자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던 우리 땅의 여름 먹거리를 계절밥상에서 맛보시고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CJ, 에이스침대와 손잡고 '숙면 캠페인'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은 에이스침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는 '숙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전국 백화점 내 에이스침대 74개 매장에서 구매상담을 받는 소비자에게 '슬리피즈'를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은 슬리피즈의 제품 특성과 에이스침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공통적으로 숙면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슬리피즈는 백야 현상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북유럽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 밤에 짠

우유인 나이트 밀크를 마신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숙면 보조 건강식품이다. 몸을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한다. 무지방으로 설계했고 락토오즈 성분을 최소화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20대 잡아라" 오리온 '뉴팝'

오리온은 '뉴팝' 출시 1주년을 앞두고 패러디 동영상 공개, 대학교 내 제품 증정 이벤트 등 20대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오리온은 9일 '허니도 놀란 신상과자 영상유출' 동영상을 공개했다. 제품 개발자의 인터뷰 형식을 빌린 해당 동영상은 마치 새로 나온 IT 제품을 설명하듯 뉴팝의 탄생 스토리와 제조 공법 등을 매우 진지하게 소개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더불어 20대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캠퍼스 어택' 오프라인 이벤트를 펼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화여대 개교 129주년을 기념해 해외 동문들이 이화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대 해외동문, 이화의료원 찾았다

개교 129주년을 기념해 제갈숙경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지회 지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각 단과대학 출신 해외 동문들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전원장 겸 의대학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해 해외 동문들을 환영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해외 동문들은 이화의료원의 발전상과 현황, 제2부속병원 건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화의료원과 제2부속병원에 바라는 소망을 '소망카

개교 129주년 기념 방문 제2부속병원 현장 답사

드(Wish Card)'에 적는 행사도 가졌다.

1960년 법학과를 졸업한 김성숙 동문은 소망 카드에 "마음 치료와 육신의 치료를 겸하는 의술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화의료원의 훌륭한 의료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동문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적었다.

아울러 해외 동문들은 이대여성암병원과 본관 4층 레이디병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이후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제2부속병원 건축 현장을 방문해 강미선 건축본부장으로부터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촬영도 했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화의료원은 여성암을 중심으로 중증질환 분야를 특화 육성해 중국, 러시아, 아랍, 몽골, 미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의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첨단 국제병원인 제2부속병원 건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니 동창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제2부속병원 건립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태극제약 '비키로크림' 용량 늘리고 세련미 입혀

'비키로크림 60g' 리뉴얼 피부손상 없이 제모 가능 굵은 털 나지 않게 도와줘

외용제 전문 국내 제약회사 태극제약이 피부손상 없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제모가 가능한 '비키로크림 60g'(사진)을 리뉴얼 출시했다. 기존 '비키로크림 50g' 제품에서 용량을 60g으로 늘리고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

손쉬운 제모를 도와주는 '비키로크림 60g'은 피부에 도포 후 닦거나 씻어내는 사용법을 통해 자극 없는 제모를 도와주는 제품이다.

주성분인 '치오글리콜산 80%(Thioglycolic Acid 80%)'은 털의 모근부위를 부드럽게 녹여 체모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털이 다시 날 때 꺼칠꺼칠하거나 굵게 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비키로크림 60g'을 이용한 제모 단계로 먼저 제모할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뒤 수분감 없이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도포한 뒤 문지르지 않은 채 5~10분 정도를 방치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털이 쉽게 제거되는 시점부터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거나 물로 씻어내면 된다.

태극제약 기획실 김주미 약사는 "여름철이면 많은 여성들이 제모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에 리뉴얼 출시된 '비키로크림 60g'은 용량을 늘려 효율성을 높였으며, 면도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나 고통 없이 간편한 제모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복현명기자 hmbok@

강강술래, 광복 70주년 기념 '아리랑' 공연 선물

30일까지 홈페이지서 추첨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창작 뮤지컬 '아리랑' 공연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G아트센터에서 상연되는 아리랑은 100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담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월 1회 투여, 당뇨·비만치료 가능성 입증"

한미약품 'GLP-1' 당뇨신약 2상 임상시험 중간결과 확인

에페글레나타이드 발표 현장.

한미약품의 GLP-1 계열의 당뇨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LAPSCA-Exendin4)가 월 1회까지 약효를 지속하는 것으로 2상 임상시험 중간결과에서 확인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미국 보스톤 컨벤션센터에서 6~8일까지 열린 제75회 미국당뇨병학회(이하 ADA) Scientific Session에서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총 5건의 임상 및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된 당뇨신약으로,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를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월 1회 용법에 대한 임상(HM-EXC-204)은 제2형 당뇨환자를 에페글레나타이드 8㎎, 12㎎, 16㎎과 위약군으로 나눠 16주간 투약한 후 당화혈색소(HbA1c) 조절과 체중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회에서는 86명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투약군에서 HbA1c가 7% 이하로 감소했다. HbA1c 목표치인 7%에 도달한 환자 비율도 60% 이상이었다. 또 체중 변화는 8㎎ 투여군에서 -2.03㎏, 12㎎ 투여군 -2.27㎏, 16㎎ 투여군 -2.37㎏의 변화를 보였다. 위약군은 -0.86㎏이었다.

당뇨 없는 비만환자 297명을 대상으로 20주간 진행한 2상(HM-EXC-205) 결과도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주 1회 투여군에서는 4㎎ -6.68㎏, 6㎎ -7.30㎏이, 2주 1회 투여군에서는 6㎎ -6.67㎏, 8㎎ -7.41㎏이 각각 감소했다. 위약군은 0.07㎏이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주1회 용법의 용량 선정을 위한 후기 2상(HM-EXC-203) 결과는 책임연구자인 Julio Rosenstocko 의학박사(달라스 당뇨&내분비센터, 미국)가 구연으로 8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제2형 당뇨환자 254명을 7개 투약군으로 나눠 12주간의 혈당강하와 체중변화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개 투약군은 에페글레나타이드 0.3㎎, 1㎎, 2㎎, 3㎎, 4㎎, 위약 및 경쟁약물인 Liraglutide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위약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HbA1c의 감소가 확인됐다. 특히 3㎎ 투여군과 4㎎ 투여군의 혈당 감소 변화율은 각각 -1.41%, -1.61%를 나타냈다. 대조약인 Liraglutide 1.8㎎ 투여군은 -1.38%이었다. 체중 변화는 3㎎과 4㎎ 투여군에서 -2.7㎏과 -3.3㎏의 유의한 체중감소가 관찰됐다.

한미약품 강자훈 상무는 "이번 임상을 통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투약주기를 월 1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효율적인 임상개발을 통해 용량과 용법, 치료효과 등 측면에서 차별화된 당뇨 및 비만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피리부는 고양이, 종로에 떴다

종로5가 이색 모자가게 오픈 수익금 일부 어린이단체 후원

서울 종로5가역 5번출구 인근에 모자가게 '피리부는 고양이'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이 곳은 한땀 한땀 리폼하고, 정성껏 손질해 '질 좋은 모자를 제일 착한 가격'을 콘셉트로 꾸몄다. 불황기에 멋과 여유를 즐기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작품을 전시·판매중이다.

20세기초 엘리자베스 키스의 더 햇 숍(The hat shop)에서 모티브를 얻어 친근한 예술의 공간으로 탄생했다. 문화와 낭만을 찾는 현대문명에 지친 도시인에게 잠시 힐링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

책이 있고, 음악이 있고, 낭만이 있는 모자가게 '피리부는 고양이'는 수익금 중 일부를 '어린이 전시순례단'에 후원하며 행복한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2) 2269-8799.

/김보라기자

"신행 미루고 출연 허락해준 색시에 감사"

뮤지컬 '아리랑' 주인공 안재욱

'새신랑' 안재욱이 신혼여행도 뒤로 미룬채 뮤지컬 '아리랑' 공연에 나선다.

뮤지컬 '아리랑'은 조정래의 대하소설이 원작이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은 작품이다. 제작사 신시컴퍼니가 2007년 '댄싱 섀도우' 이후 8년의 공백을 깨고 야심 차게 준비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공연돼 더욱 의미가 크다.

안재욱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의식 있는 양반 송수익을 맡았다. 송수익은 양반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옳은 것이라 믿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인물이다.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면의 고뇌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운 캐릭터다.

9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안재욱은 "훌륭한 배우들이 많은 데 아리랑 무대에 설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송수익을 맡았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만약 객석에서 '아리랑' 공연을 보게됐다면 정말 후회했을 것"이라며 "색시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신혼여행까지 미루고 출연을 허락해준 색시에게 감사하다"고 아내 최현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안재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아리랑'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기념 제작된 대형 뮤지컬
옳은 길 꿋꿋이 걷는 양반 송수익 맡아
7월 16일 ~ 9월 5일 LG아트센터 공연

3년여에 걸쳐 기획·제작된 뮤지컬 '아리랑'은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댁 가족사 중심으로 재편했다.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한 50여 곡이 19인조 오케스트라 선율로 펼쳐진다.

작곡가 김대성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극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했다.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전통적인 서양 악기에 해금과 북만을 덧입혀 다양한 변주와 반복이 주는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작가 조정래는 " 우리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뮤지컬로 다른 생명을 받은 '아리랑'을 통해 우리 국민이 응집되고 단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민족적 증오와 울분에 공감하고, 우리 선조들의 힘든 인생사를 통해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듀서 박명성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한번은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2007년 '댄싱 섀도우' 이후 사고칠 만한 작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리랑을 선택했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진지하게 만들어간다면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뮤지컬 '아리랑'은 작품 배경을 1920년대 말까지로 시간을 한정했다. 소설 속 수백 명의 인물들은 감골댁 가족사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필요한 만큼 소설에 없는 관계 설정도 했다.

극본·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전라도 사투리로 '오지다'는 말은 뭔가 형언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인데 정말 이 작품은 오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40년의 대서사시를 2시간40분 분량으로 담아는 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프지 않게 애통하지만 카타르시스가 있게 만들려 했다"고 연출 의도를 공개했다.

무대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화려함을 위해 뮤지컬 '고스트'에서 사용됐던 트레블레이터와 LED 등이 사용됐다.

송수익 역은 안재욱과 함께 뮤지컬 배우 서범석이 맡았다. 어지러운 시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양치성 역은 뮤지컬 배우 김우형과 카이가 더블캐스팅 됐다. 고난과 유린의 세월을 몸소 감내하는 수국 역은 윤공주와 임혜영이 맡아 한국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줄 예정이다.

수국의 친구로 수난의 나날들을 이겨내는 옥비 역은 국립창극단의 히로인 이소연이 출연해 판소리와 뮤지컬 음악을 오가며 한국의 멋과 흥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수국의 사랑 득보는 뮤지컬 '원스'로 사랑받은 이창희와 연극배우 김병희가 번갈아 출연한다.

뮤지컬 '아리랑'은 7월16일~9월 5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star bag

신곡 타이틀 '심쿵해'

걸그룹 **AOA**가 신곡 타이틀을발표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8일 "AOA가 22일 '심쿵해'를 타이틀곡으로 한 세 번째 미니 앨범 '하트 어택(Heart Attack)'을 발표하고 7개월 만에 컴백한다"고 전했다. 오는 22일 세 번째 미니앨범 발매를 기념해 쇼케이스도 개최한다.

강동원 여친 변신

배우 **신소율**이 영화 '검사외전'에 출연한다. 극중 강동원이 연기하는 사기꾼 치원의 여자친구 하나 역을 맡았다. '검사외전'은 '군도: 민란의 시대'의 조감독이었던 이일형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지난달 18일 크랭크인해 한창 촬영 중이다.

PiFan 함께 알려요

배우 **오연서**와 **권율**이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홍보대사 '피판 레이디&가이'에 선정됐다. 두 사람은 오는 1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영화제는 다음달 16일 개막한다.

서인영 "센 이미지 벗겠다"

5집 '리 버스' 화려한 컴백

가수 서인영이 9일 5집 미니앨범 '리 버스'(Re birth)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리 버스'는 과거 20cm에 가까운 힐과 짙은 아이라인으로 무장한 채 누구보다 기가 센 이미지를 벗고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서인영은 이날 타이틀곡 '거짓말'을 비롯해 '엉망이야' '영화찍지마' 'on & on' 등 미니앨범에 수록된 4곡을 선보였다. 그는 "센 이미지에 지쳤다. 맞지 않는 옷처럼 예능에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덧입힌 캐릭터였다"며 "앞으로 무대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곡 '거짓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뿐인 남자에게 이제 떠나라는 내용의 가사와 스윙 리듬을 가미한 멜로디가 강렬하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다.

서인영은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허당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스타일"이라며 "여자들이 내 노래에서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어 '거짓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그룹 트로이의 칸토에 대해 "칸토는 목소리가 작착 감기면서도 힘이 좋다"며 "나이가 어려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데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인영은 9일 오후 SBS MTV '더 쇼'의 컴백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

가수 서인영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예홀에서 열린 새 미니앨범 '리 버스(Re birth)'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칸토와 멋진 듀엣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최고의 제작진이 뮤지컬 또봇의 새 역사를 준비한다!"

뮤지컬로 만나는 또봇탐험대

TM

태권K와 시간탐험대

2015. 7. 17금 ~ 8. 23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02-541-2929 주최/주관 YOUNG TOYS 기획/제작 공동제작 투자사

소신껏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film review

유괴사건 소재로 70년대 사회적 분위기 담아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극비수사

'극비수사'(감독 곽경택)의 공길용(김윤석)은 정의로운 형사다. 다른 형사들처럼 관례와 같은 촌지는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한 형사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속물근성에 젖지 않고 소신이 있다는 점에서 그는 정의롭다.

그런 공길용 형사에게 유괴사건이 주어진다. 재력가의 딸이 유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공길용 형사는 사건을 극비리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가 않다. 자신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관할 형사들의 경계 어린 시선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길용 형사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김중산(유해진) 도사의 한 마디, 바로 "공길용 형사의 사주여야만 유괴범을 잡을 수 있다"는 말 때문이다.

희대의 유괴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극비수사'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는 큰 관심이 없다. 대신 곽경택 감독은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1970년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리는데 관심을 쏟는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데모 현장 속 병아리들, 그리고 비릿한 생선과 금고 속에 쌓인 돈을 오버랩시키는 오프닝에는 영화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잘 담겨 있다.

공길용 형사와 김중산 도사에게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려는 다른 형사들 앞에서 번번히 실패를 거듭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김중산 도사의 한 마디가 힘을 불어넣는다. "내게 남은 건 딱 하나, 소신뿐이네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 누군가는 이들에게서 지난해 한국사회가 겪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극비수사'는 굳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1978년과 2015년, 정확히 37년이 지난 지금도 소신 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삶은 늘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영화는 이런 슬픈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영화가 끝났다면 서글픈 마음으로 극장 밖을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곽경택 감독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이들의 뒷이야기를 조금은 길게 펼쳐 보인다. 소신 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위로가 그 에필로그에 담겨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6월 18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뮤지컬스타와의 개성만점 토크쇼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뮤지컬스타 특집이다. 3년 연속 티켓파워 1위에 빛나는 뮤지컬 대표 디바 옥주현과 뮤지컬계의 프린스로 도약한 이지훈, 국민살인마 이미지를 벗고 뮤지컬계의 블루칩이 된 신성록, 개그맨 김수용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뮤지컬배우 김수용이 출연해 솔직담백 토크를 펼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폭우로 고립된 산장에서 미스터리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깊은 밤 산장에서 사체의 사진이 찍힌다. 그러나 현장에는 시체가 없다. 산장에 고립되어 있던 5명이 용의선상에 오른다.

◆ MBN '나는 자연인이다'

오후 9시40분

백마흔네 번째 자연인 오판규. 대낮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산중의 묘지 터를 보금자리 삼아 7년째 산중생활을 즐기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을 버리고 산으로 온 이유가 밝혀진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천혜의 섬, 제주도의 맛집을 파헤친다. 최태준, 오세득 셰프와 제주도 특별 보양식, 제주도 전복 요리를 집중 탐구한다. 추사 김정희의 70세 장수 비법도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5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48회)	15 불굴의 차여사 (10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3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6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1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7회)	00 맨도롱 또똣 (9회)	00 가면 (5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돌아오지 않는 해병>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0회) (재)	00 집밥 백선생 (4회) (재)	0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15·16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LG (SPOTV+) 한화 vs 삼성 (MBC SPORTS+) KT vs 롯데 (SKY SPORTS) 넥센 vs KIA (SBS SPORTS) NC vs SK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6회) 55 JTBC 뉴스룸	30 명단공개 (66회) (재)	00 식샤를 합시다 2 (15회)	00 쇼킹 70억 (15회)	40 파이터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6회)	30 식샤를 합시다 2 (16회)	00 아시아의 열대 -2부 까로의 슬픈열대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5회)	40 수요미식회 (20회)		00 2015 쥬라기 스페셜 스피노사우루스 vs 티라노사우루스		
22시			00 올리브쇼 2015 (2회)	00 2015 쥬라기 스페셜 생존왕, 티라노사우루스	00 내 아내의 모든 것	
23시	00 크라임씬 2 (10회)	00 고교10대천왕 (7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20회)	00 <전쟁의 대가들>벌지전투: 발터 vs 브래들리		
24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4회) (재)	20 삼시세끼 정선편 (4회) (재)	00 한식대첩 3 (3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8회)	20 도희야	

'디펜딩 챔피언' 일본 산뜻한 출발

FIFA 여자월드컵

日, 스위스에 1-0 승리… '죽음의 D조' 미국, 호주 3-1 제압

2011년 FIFA 여자 월드컵 우승팀인 일본이 스위스에 신승을 거뒀다.

FIFA 랭킹 4위 일본은 9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팰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1차전 스위스(19위)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스위스의 거친 몸싸움에 고전했지만 전반 29분 골잡이 안도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얻은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갈랐다. 이를 아야 미야마가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남은 시간 수비전술을 펼쳐 승리를 지켰다.

앞서 열린 카메룬(53위)과 에콰도르(48위)의 경기에서는 카메룬이 가엘레 엥가나무트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6-0 대승을 거뒀다. 카메룬은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은 뒤 후반에도 3골을 추가해 에콰도르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잠재웠다. 승리를 거둔 카메룬은 13일 일본과, 에콰도르는 스위스와 각각 2차전을 치른다.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D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이 예상대로 호주를 꺾었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거둔 FIFA 랭킹 2위의 미국은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10위)와의 1차전에서 메간 래피노의 멀티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FIFA 랭킹 5위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과 나이지리아(33위)와의 경기는 치열한 공방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전반 2-0으로 앞섰지만 나이지리아가 후반 초반 연속 두 골을 넣으며 균형을 이뤘다. 다시 1골을 만회해 3-2로 앞서갔지만 후반 3분을 남기고 나이지리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3-3으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다. 미국은 오는 13일 스웨덴, 호주는 나이지리아와 2차전을 치른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팰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FIFA여자월드컵 C조 1차전 스위스와의 대결에서 1-0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9일 전적

▷C조

일본(1승) 1(1-0 0-0)0 스위스(1패)

카메룬(1승) 6(3-0 3-0)0 에콰도르(1패)

▷D조

미국(1승) 3(1-1 2-0)1 호주(1패)

스웨덴(1무) 3(2-0 1-3)3 나이지리아(1무)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윤덕여 감독(왼쪽)과 조소현이 9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연·조소현 주목하라"

'윤덕여호' 오늘 오전 8시 강호 브라질과 첫판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윤덕여(54) 감독이 강호 브라질과의 1차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선수로 지소연(24·첼시 레이디스)과 조소현(27·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을 꼽았다.

윤 감독은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열리는 브라질과의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하루 앞두고 9일 "조소현은 주장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믿는다. 공격에서는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소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인 브라질은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손꼽힌다. 공격진에는 월드컵 통산 득점 랭킹 공동 1위(14골)를 기록중인 '여자 펠레' 마르타(29·로젠가르드)가 버티고 있다.

윤 감독은 "브라질에는 마르타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가 많다"면서도 "우리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년만의 본선 진출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 한국에서 성원을 보낼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전해 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하희철기자

강정호, 3타수 무안타 침묵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삼진 1볼넷을 기록했다. 전날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리며 2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깼던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74에서 0.268(127타수 34안타)로 다시 하락했다.

헤르난 페레스의 도루를 저지하고 있는 피츠버그의 강정호. /AP연합뉴스

강정호는 첫 타석부터 삼진을 당했다. 0-0으로 맞선 2회말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투수 지미 넬슨과의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0-1로 뒤진 5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랐다. 6회말 2사 1, 2루에서는 초구를 친 공이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8회말 2사 1루에도 제레미 제프리스와 풀카운트 승부를 했지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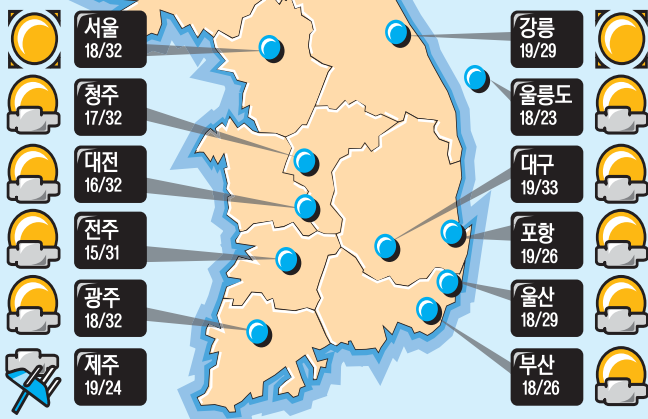
그러나 수비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7회초 무사 1, 2루에서 밀워키 타자 세구라가 삼진으로 잡히자 포수 세르벨리와 호흡을 맞춰 2루에서 3루로 뛰던 헤르난 페레스의 도루를 저지해 한 번에 아웃 카운트 2개를 잡는 데 기여했다.

피츠버그는 밀워키에 0-2로 패했다. /하희철기자

평창올림픽 세부 종목 6개 추가 금메달 4개 늘어난 102개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4개 종목의 6개 세부 종목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종목에서 세부종목 2개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금메달 수는 102개로 확정됐다.

IOC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컬링 혼성,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혼성 매스스타트, 알파인스키 팀 이벤트, 스노보드 빅 에어 남녀 종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스노보드 남녀 평행회전(parallel slalom)은 2018년 대회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 총 금메달 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98개에서 4개 늘어난 102개로 결정됐다. /하희철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5					1		4
		9	1				5	
1		6			3	5		
	4	3			1			
2		5			4	7		
		8	2				9	
	6					3		5
	7			9				

			1		9			
1	5						4	9
	9	3		8		7	1	
		5	2		7	1		
	2						7	
		4	9		3	8		
	1	9		2		4	6	
8	4						5	7
			4		6			

스도쿠 정답

4	3	1	5	8	2	9	6	7
8	5	7	6	3	9	1	2	4
6	2	9	1	4	7	8	5	3
1	8	6	7	2	3	5	4	9
7	4	3	9	5	1	6	8	2
2	9	5	8	6	4	7	3	1
3	1	8	2	7	5	4	9	6
9	6	2	4	1	8	3	7	5
5	7	4	3	9	6	2	1	8

2	6	7	1	4	9	5	3	8
1	5	8	7	3	2	6	4	9
4	9	3	6	8	5	7	1	2
3	8	5	2	6	7	1	9	4
9	2	1	8	5	4	3	7	6
6	7	4	9	1	3	8	2	5
7	1	9	5	2	8	4	6	3
8	4	6	3	9	1	2	5	7
5	3	2	4	7	6	9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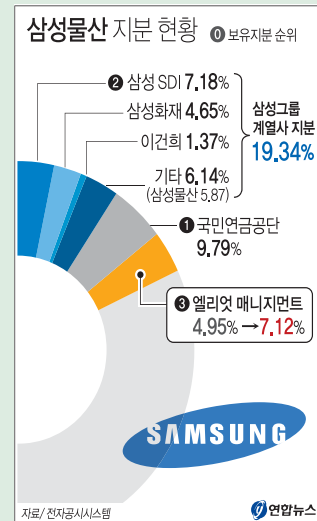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Merger percentage assessment problem, due to the merge of Jaeil Woolen Fabic and Samsung C&T corporation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드러난 상장사 합병비율 산정의 문제점>

It is known that there is a merger percentage assessment problem between Jaeil Woolen Fabric and Samsung C&T Corporation.

In case of non-listed company, the merger price is determined by the company's assets and value of the revenue. In case of listed company, the merger price is determined by the stock price at the time when merger contract was made. In case of Jaeil Woolen Fabric where the stock inflates depending on the supply and demand, other stock holders in other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get damaged.

The merge of Jaeil Woolen Fabric and Samsung C&T Corporation which was announced on the 26th of last month, is 1 to 0.35. But if Jaeil Woolen Fabric was an unlisted company, percentage rate of merge would be higher.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상장사 합병비율 산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업 본연의 자산과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상장사는 단순히 합병계약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한다. 제일모직처럼 테마성 수급에 의해 주가가 뻥튀기된 경우 자산가치가 훨씬 많은 상대기업 주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6일 공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다. 그러나 제일모직이 비상장사 였으면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더 높아 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노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가게 인수땐 빚더미… 2017년 후 재물 운

피노키오 여자 62년 12월 8일 양력 6시경

Q 메트로 신문에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여성 독자 입니다. 생월 생시에 따른 사주팔자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 하다가 문득 제 앞으로 다가오는 운세가 궁금하게 됐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수단인 직업과 수고한 대가로 받는 봉급에 대한 것이 제일 알고 싶습니다.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 제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형부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제가 노후까지라도 먹고 살수가 있을까요?

A 총명하고 활동적인데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형부와 일을 하다보면 의견 충돌이 잦아져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월덕귀인(月德貴人)의 형상으로 재성(財星:재물)이 암장(暗藏:창고에 숨겨둔 것과 같은)되어 있으니 나이 먹으면서 돈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는데 2017년이 지나면 재물과 합을 이루게 되어 사는 걱정은 덜어질 것입니다. 그 후 2018년은 무리를 해서 집을 사거나 또다시 가게를 한다고 확장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니 그때는 그때대로 다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2015년 재물과 조화를 이루므로 미장원을 인수하는 것은 편재(偏財:비정규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뜻함)가 하향길로 가고 있으므로 인수하면 난감하게 된다고 봅니다. 운에서 화기(火氣)가 들어 있어서 역동적인 기운으로 안정을 하지 못하여 인수하고는 공연한 불안감이 엄습하여 좌불안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생각과 달라져서 다른 사람 일을 보조하면서 같이 할 때보다는 현저하게 힘들고 피곤에 지치게 되고 돈은 돈대로 어렵게 될 터인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만류하고 싶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 밑에서 맑은 샘물이 쉴새 없이 나오듯이 머리회전이 빠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깨끗한데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한 성미)으로 일에 임해서는 남과 융화를 잘 하는 편은 아니며 참다운 화합을 하기가 어렵기에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면 돈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역학 용어를 쓰니 이해 할 수 없을지라도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이해가 가고 들떠 있는 마음이 차분해져서 판단력이 맑아지리라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0일 (음 4월 24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을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49년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1년생** 건강에 무리가 있으니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73년생** 관재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85년생** 가까운 곳은 길하지만 먼 여행은 피하세요.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있게 추진하세요.

51년생 먼저 말을 걸고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 매매나 거래는 좋지 않으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75년생**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세요. **87년생** 뜻대로 잘 안되니 마음이 힘듭니다.

52년생 지금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64년생** 동료에게 덕을 베풀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88년생** 혼자 하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세요.

53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7년생** 뜻대로 일이 안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89년생** 이성운이 좋더라도 너무 늦게 귀가하지는 마세요.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79년생** 혼자 도모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세요. **9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부터 돌보세요.

56년생 금전이나 문서 거래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0년생**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는 격입니다. **92년생** 사고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년생 분실운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69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고비만 넘기면 좋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생**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9년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71년생** 시간을 끌면 불리하니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이동이나 외출은 남쪽이 길합니다. **95년생** 운이 좋으니 계획하던 것을 실행하세요.

메르스가 삼킨 한국경제

윤경용의 So what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내수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백화점, 음식점, 항공 등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공포가 확산한 지난주 카드업계 승인액이 평균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A카드사의 경우 지난주 말 카드 승인금액이 전 주말에 비해 16% 줄었다. 월말로 갈수록 취급액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심상치 않다. B카드사 역시 지난주 카드 승인금액이 전주에 비해 11% 가량 감소했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3~15% 뚝 떨어졌다.

여름 성수기 이벤트를 준비중인 카드사 입장에선 메르스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수익에 악영향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준비 중이던 이벤트를 중단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메르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카드사는 내달 회원 대상으로 1박2일간 진행되는 캠핑 이벤트 응모를 잠정 중단했다. S카드는 대학생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경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영랩마케터' 3기 수료식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H카드 역시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뮤직 라이브러리' 공연을 연기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메르스 사태에 발목을 잡혔다.

메르스 사태가 불러온 소비심리 위축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메르스 발병 직후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공포심을 확산시켰고, 이 같은 불필요한 우려감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나 2009년 신종플루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사스나 신종플루는 국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약이 있어 사망자 등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는 사망자가 나왔고 이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자체별 휴교로 유동인구가 확연히 줄면서 서비스·자영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메르스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되지 않고 진정돼도 최소한 1분기 정도는 경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8일 "이번 메르스 사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감이 깔린 발언이다. 메르스 여파로 확산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정부의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다. /경제부장

삼성-엘리엇 분쟁, 해결의 열쇠는 삼성 손에

기자 수첩

조 한 진 <산업부 기자>

삼성과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엘리엇은 이 합병의 반대를 위해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결정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를 다지려는 삼성은 주식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엘리엇은 '주주 이익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엘리엇은 9일 합병안 진행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합병이 결정돼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다. 경제개혁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존 주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호'의 방향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승계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왔지만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삼성을 이끌어야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삼성이라 해도 핵심 사업결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오너의 역할은 중요하다. 1년 넘게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 마디에 한국 사회가 귀 기울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과 엘리엇의 대결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우선 양측은 우호지분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과 다음달 17일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여기까지 삼성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낸 엘리엇이 주주총회 결과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외국으로 끌고 갈 여지가 충분하다.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상태다. 엘리엇이 불합리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런던법원에 삼성물산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합병을 결의한 임원들의 업무상배임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엘리엇이 해외에서 삼성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쪽은 삼성이 될 공산이 크다.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덧칠해질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주주가치에 대한 보장이 철저한 경향이 있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가 7위에 올랐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제품으로 대결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사실상 삼성이 유일하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국계 투기자본이 삼성을 공격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업인 삼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은 대의명분에서 엘리엇에 밀리고 있다. 삼성물산 일부 소액주주들은 엘리엇에 힘을 실어주자며 주주의결권 위임 등을 얘기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삼성은 표 이탈 방지를 위해 고위층이 직접 해외주주들을 단속하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삼성이 엘리엇의 공격을 막고, 그룹 전체의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합병비율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삼성이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다. 합병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다소 줄 수 있지만 '이재용의 삼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의 3대 승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수뇌부도 삼성의 미래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냉철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국제분쟁은 예고없이 생기지 않는다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한국회사인 A사는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년 동안 미국의 B사에 공급해 왔다. 그런데 B사는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A사가 강력하게 부당성을 항의를 하니, B사는 "충분히 변호사들과 상의하였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A사를 비웃었다.

A사는 추가 납품을 위해서 미리 원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는 바람에 자금이 이중으로 묶이게 되어 부도를 염려하여야 하게 되었다.

B사는 A사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사는 A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물품대금을 대폭 할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회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대체적으로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

첫째는 잘 모르는 나라의 법으로 싸우려니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둘째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셋째는 소송을 하면 수 개월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B사는 A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몰래 찾고 있었고, B사의 이러한 의도는 A사와의 정기적 공급가격의 조정협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었다.

그런데 A사는 이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감지하였더라면 A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B사와의 거래의 정리나 새로운 거래선의 발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B사의 이러한 시도가 감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A사로서는 B사만 의존해 거래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긴 지금의 상황에서 관련 모든 정보들을 종합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소송 또는 소송 외적인 각종 조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쟁해결전략을 확정하면 분쟁상황을 유리하게 더 빨리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 분쟁처리 경험이 없다. 이를 처리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여 우왕좌왕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김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사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이상휘
■ 경북과학대학교
△승진 ▷보안카지노경영과 부교수 김동삼 ▷간호학과 조교수 정윤화 △임용 ▷부사관과 조교수 정일동 ▷간호학과 조교수 신소홍 손희정 홍경숙 김윤영 송현영 최동숙 ▷유아교육과 조교수 손상희 권랑희 이기호
■ 부산일보
▷제작국장 겸 부일인쇄 사장 김덕원 ▷제작국 부국장 서정수 ▷부일IS 사장 김용환 ▷D&C사업단장 편창식 ▷경영지원본부 전략사업팀장 이형복 ▷" 전략사업팀 차장 우희철

현명한 당신을 위한
여행의 새로운 스타일

세미팩 SEMI PACK

세미팩여행이란? **패키지여행+에어텔여행**

세미팩여행은 편리하고 저렴한 패키지여행+자유로운 에어텔을 조합한 경제적이고 똑똑한 여행상품입니다

유럽 세미팩 - BEST -

영국과 프랑스 여행 8일
2,696,000부터
▶ **6월~9월 매주 월,화,목,금,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런던(3)-파리(3)-기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8일
3,458,000부터
▶ **6월~9월 매주 금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로자그레브-스플리트-두브로브닉-자다르-플리트비체-오파티아-블레드-루블랴나

스위스여행 ★융프라우 등반 6일
2,819,600부터
▶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취리히-루체른-인터라켄(4)-베른
● 4인이상 출발 보장, 시내 위치한 호텔 투숙

남태평양 세미팩 - BEST -

괌 ★니코/아웃리거/웨스틴리조트 4일
725,400부터
▶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괌(3) ● 럭키 7+시내관광+현지식 1회

사이판 ★마리아나 리조트 4일/5일
685,400부터
▶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사이판(3/4)

팔라우 ★NEW 블루오션뷰 호텔 5일/6일
829,600부터
▶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팔라우(3/4) ● 일급 NEW 블루오션 호텔 스탠다드룸
● 팔라우아일랜드+스톤머니+박쥐동굴 관광+중식,석식1회

동남아 세미팩 - BEST -

세부막탄 ● 세부(3/4) 4일/5일/6일
★J 파크 아일랜드 막탄스윗 가든뷰
824,100부터
▶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리조트 식사2회 포함, 전신마사지 1시간 제공

나트랑 ★빈펄리조트 5일/6일
1,279,600부터
▶ **6월~9월 매주 수,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나트랑(3) ● 빈펄랜드 자유이용, 중/석식 리조트식

대만/야류 ★1일자유 4일
609,400부터
▶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대만(3) ● 1인자유로 나만의 일정만들기
● 오각선반레스토랑 샤브샤브 특식제공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1577-1212**